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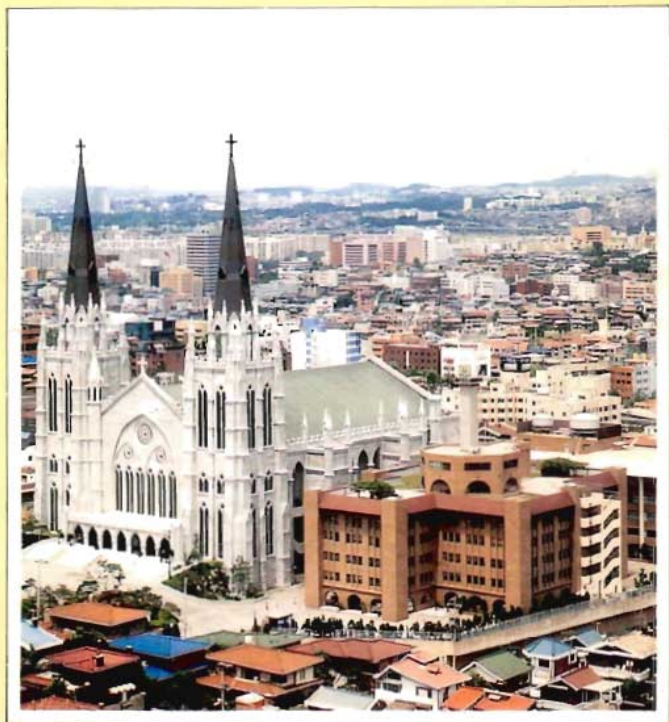
가정예배 · 구역예배 안내서

1

1997

충현의 만나

이 달의 말씀 ·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대한예수교
총회
상 조 회

1

1997

가정예배 · 구역예배 안내서

충현의 만나

이 달의 말씀 ·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기도제목

1.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새해가 되도록
2.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후임 담임목사를 속
히 허락하소서.
3.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도록
4. 김창인 원로목사님의 건강과 영력 넘치는 사역을
위하여
5.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의 성령 충만을 위하여
6.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구역 조직을 통하여 교
구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되도록
7. 교회 모든 위원회와 부서들의 질적, 영적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8. 민족 복음화와 복음으로 인한 남북통일이 속히 이
루어지도록
9. 나라와 민족과 교단과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
을 위하여



충현의 만나

1997년 1월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간행물입니다.

옥중서신 서론

옥중서신은 일반적으로 바울이 그의 생애 말년에 로마의 옥중에 있을 때 쓴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포함되어 있다(행 28:16, 30-31 참고). 에베소서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와는 달리 개인적인 믿음보다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묘사된 교회의 이미지와 공동체 구원사상이 돋보이는 서신이며,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로 이름지을 만큼 에베소서에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새롭고 강한 비전이 가득 차 있다.

빌립보서는 종종 '기쁨의 서신'으로 불리어 왔으며, 그리스도의 인격과 마음을 가장 명료하면서도 인상적으로 묘사한 2:5-11은 많은 성도들에 의해 애창되어 왔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다(1:8; 4:1).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바울이 개척했기에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며 재정과 기도로 그를 후원하고 있었다(1:5, 19; 4:10, 14-18).

본문의 구조

에베소서	빌립보서
1. 새로운 삶(1:1-2:10)	1. 인사와 감사기도(1:1-11)
2. 새로운 사회(2:11-3:21)	2. 바울의 현 상황과 경건한 삶에 대한 도전(1:12-2:30)
3. 새로운 표준(4:1-5:21)	3. 그리스도인의 목표(3:1-21)
4. 새로운 관계(5:22-6:24)	4. 그리스도인의 표지(4:1-9)
	5. 자족하는 삶(4:10-23)

「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 」(1:11)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므로 원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사 자범죄도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의 형벌을 면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자는 죄를 용서받습니다. 성령님을 택자들에게 보내주셔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회개하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은 구원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인도하심은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감격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택해 주시고 불러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개인 기도 시간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구체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또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는 찬송을 많이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헌신해야 하겠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헌신하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소서.

7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3 (1:23)

사도 바울은 에베소교회 성도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의 중보기도 속에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에베소교회 성도들이 잘 알게 되어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계적으로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야 가능한 것이라는 고백과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소원이 절실했습니다. 또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온전케 하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기업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천국에서 영생활 것을 확실히 알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사 능력의 지극히 크심도 알기를 원했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통치권을 주심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특히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각 지혜가 되게 하셨으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능력있는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을 생활에서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② 김창인 원로목사님에게 성령충만함과 강건함을 주소서.

『...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 하나님의 선물이라』(2:8)

하나님께서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때에는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우리의 욕심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진노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과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영적인 죽음과 하나님과 영원히 이별하는 죽음인 지옥이 그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두번째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죽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들을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죄 때문에 죽어 있었으니까 죄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즉 구원얻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믿어져야 하는 것인데 그 믿음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은 것을 자랑치 못합니다. 내가 똑똑해서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해서 선한 일에 열심으로, 기쁨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죽음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로 단절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하나님과 은밀히 교제하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또한 죄를 밀어내야 합니다. 죄가 발견되면 지체없이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이 놀라운 교제가 계속되어지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즐기는 은혜를 더욱 주소서.
②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담임목사를 속히 보내 주소서.

⁷ 너희도 성령 안에서 ...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22)

하나님께서서는 단절된 것을 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 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관계도 좋게 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과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을 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교회 성도들은 본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약속에서 제외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가까워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별이 없이 모두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을 사람들을 이미 선택해두셨는데 그들은 모두가 참으로 하나님의 선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는 모두가 이방인이 아니요 참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우리는 외국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퉁이돌이 되신 예수님 위에 세워지는 건물의 한 부분이 된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구약과 신약을 기록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20절).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직은 미완성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잘 지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는 어떠한 편중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파벌의식은 마귀적인 것이며 특별한 대우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을 따라 사용되어지는 것뿐입니다. 모든 성도를 똑같이 사랑하는 은혜로 간구하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것을 힘쓰고 파벌의식을 버리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충현교회가 되게 하소서.

「...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3:6)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특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의미에서 후사가 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된 부모의 소유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였기에 후사가 될 수 없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양자된 것을 구속함받는 것과 동일시했습니다(롬 8:23).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구속함을 얻지 못한 자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후사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구속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기에 예수님의 이름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없습니다(행 4:12). 이처럼 성도는 후사가 되는 특권을 부여받았기에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또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권은 전제 군주의 후사가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귀하며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특권을 소유한 사람만이 천국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특권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특권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특권이 없이는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특권을 얻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간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더욱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②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귀한 사역 감당하게 하소서.

“...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3:16)

성도가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첫째, 강건한 능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능력 곧 사단의 능력에 의해 살아가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생활에서 실패한 사람은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으며 결국 자신의 의지로 대적 마귀와 싸웠기에 낭패를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믿음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박을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17절). 다시 말해 사랑에 뿌리박지 못한 믿음은 아직 완전하지 못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며(롬 13:10) 가장 큰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께 믿음만 구할 것이 아니라 사랑도 함께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어집니다(갈 5:22). 그렇다면 결국 성도는 믿음과 사랑을 소유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강건한 능력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 보아야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항상 기도하여 성령충만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② 당회원들이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 (4:2)

사도 바울이 기본적인 원리로 가르친 성도의 삶의 원리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입었습니다(롬 8:28). 때문에 성도는 부르신 자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둘째, 겸손과 온유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사상입니다(잠 3:34). 그런데 사람들은 겸손을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무조건 낮추는 것으로 생각하여 솔직하지 못한 면을 상당히 노출시켰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함으로써 무신론에 빠지거나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겸손한 성도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겸손한 삶은 온유한 삶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셋째,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믿음은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의미를 지니지 못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그의 생활에서 오래 참음과 사랑의 열매를 나타내는 법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바를 기본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성령의 충만으로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시며,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모든 일을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게 하소서.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4:6)

우리는 본문을 통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신들과 어떤 면에서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만유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기에 당연히 만물보다 뛰어나십니다. 인간이 만든 물건이 인간을 능가할 수 없듯이 만물은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의 뛰어나심은 이 세상 어느 피조물과도 비교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처럼 능력의 한계를 지니신 분이 아니라 무한하신 능력, 곧 전지 전능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둘째, 만유를 통일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생존 근원이 되심을 의미함과 동시에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만물은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는 것입니다.

셋째, 만유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후 단순히 만물 위에 초월해 계시지 않고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통치자로서 직접 만물을 다스리고 유지하시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과 우주 만물 가운데 오셔서 직접 개입하시기에 역사가 그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고 해도 그것은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비교할 때 너무도 보잘것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깨달음 가운데 있는 성도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으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만 영광돌리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소서.

「...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5:8)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된 자는 더 이상 옛생활을 하면 안됩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기 위하여 첫째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빛이시기 때문에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곧 빛의 생활입니다. 빛의 생활은 사랑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2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빛의 생활입니다. 둘째는 어두움 속에 살아왔던 옛생활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지 않고서 빛의 자녀처럼 행할 수 없습니다. 옛 생활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등이며, 내 마음 속에서, 생활 속에서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셋째는 빛의 자녀처럼 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인간의 힘과 결심만으로는 어두운 현 세상 속에서 빛의 생활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에 유혹을 받아 방탕하게 되고, 세상의 쾌락에 취하여 빛의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강력한 통치를 받아야만 빛의 자녀처럼 살 수 있습니다. 빛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내 속에 유지할 때에 빛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충현의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전력을 다하게 하소서.

“...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5:33)

많은 사람들은 인간에게 기쁨과 안식을 줄 수 있는 행복을 찾고 있고, 또한 가정의 행복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돈이 그 사람에게 행복의 기준이 된다면 그 사람은 행복을 위하여 돈을 버는 데 그 인생과 시간과 건강을 다 투자할 것입니다. 반면에 지식이 그 사람의 행복의 기준이 된다면 그는 공부하는 데 모든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투자할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나 지식이나 권력이 인간에게 일시적인 쾌감과 보람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한 행복과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외부적인 조건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보장해 주지도 못합니다. 행복한 가정생활의 첫번째 조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있습니다. 참된 마음의 평강과 안식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어지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없는 사람은 아무리 화려한 외부적인 조건을 다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내적인 평강과 안식이 없다면 그 안에 행복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부부간의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감당할 때 행복한 가정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과 경외하는 마음이 조화를 이룰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충현의 모든 가정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웃에게 행복을 나누어 주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하나님께서 흠향하실 영적 찬양을 부르게 하소서.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6:7)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대인관계를 잘해야 합니다. 대인관계의 기본원리는 가정의 원리에서 나옵니다. 자녀들에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잘하게 하려면 먼저 가정에서 인격교육과 생활교육을 잘해야 합니다. 가정의 교육이 무너지면 사회의 윤리와 질서가 무너지고 폐륜아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의 현실이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랑을 받으면서 정상적으로 자라나야만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사회생활은 첫째는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상전은 사회생활 속에서 그 분야의 선배일 수도 있고, 회사의 사장이나 상사나 어른을 호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둘째는 눈가림으로 하지 말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꾸미지만 실제로는 일하지 않고 놀고 먹으려는 것은 사회를 부패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성도는 눈가림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보든지 아니 보든지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깨끗하고 정직하게 일해야 합니다. 셋째는 공갈을 그쳐야 합니다. 이 말은 기독교인의 상사나 기업주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직원의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정상적인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힘없고 연약한 자를 헐박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며, 성경적인 사회생활이 아님을 명심합시다.

▶ 기도 제목 / ①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귀함을 받는 충현의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소서.

†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6:17)

우리 주변에서는 지금도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며,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전후방이 없으며, 휴전선이 없는 가장 치열하고 무서운 전쟁입니다.

바울은 성도로서의 교회, 가정, 사회생활에서의 빛의 자녀처럼 생활할 것을 교훈한 후에 곧 바로 성도의 삶을 파괴시키고 성도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들과의 영적 투쟁을 촉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 전쟁의 필요성, 자세, 무장 등이 실제 전투에 임하는 병사의 모습에 빗대어 생동감 넘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무장을 하고 구원의 확신과 담대함으로 적극적으로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며,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한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전쟁이 승리를 획득하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쟁취한 승리를 보존하기 위한 싸움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생활 속에서 순종함으로 믿음을 키워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나의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요일 5:4)

▶ 기도 제목 / ① 우리 충현의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소서. ② 각 교구가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되게 하소서.

『...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이라』(1:7)

성도들은 어려운 가운데 서로 힘을 합함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빌립보교회 교인들의 헌금을 받고 그들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 누릴 축복에 대하여 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첫째, 성도들은 복음 안에서 교제하여야 합니다. 바울의 마음 속에는 항상 빌립보교회 교인들이 있었으며, 빌립보교회 교인들의 마음에도 항상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마치 젖먹이 자녀들로부터 떨어져서 감옥에 갇힌 어머니의 심정으로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보다는 빌립보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빌립보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위하여 선물을 보냄으로써 바울이 겪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였습니다.

둘째, 성도들은 서로에 대해 사모하여야 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것처럼 바울은 빌립보교회 교인들을 사모하였습니다. “나의 양을 치라”는 주님의 음성을 바울은 분명히 들었으며 그 일만이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희생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성도들은 서로를 위하여 진정으로 기도하여야 합니다. 빌립보교회 교인들이 사랑의 은사 위에 지식과 총명과 분별력과 진실에 있어서 풍성하게 되고 의의 열매가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빌립보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들과 함께 주의 은혜에 참여합니다(마 10: 41).

▶ 기도 제목 / ① 주의 일꾼들을 협력함으로 주의 일꾼들에게 주시는 은혜에 참여케 하소서. ② 남녀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1:12)

소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듯이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충성되게 일하는 주의 일꾼들의 인생은 어떤 경우에도 유익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어떤 곳에서나 복음이 진보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밑거름으로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바울을 보면서 우리들의 목표가 과연 주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삶만이 영원한 상급이 있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매임을 인하여서도 담대히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형제 중 다수는 바울이 진리의 말씀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바울은 전쟁터에 나가서 부하들의 앞장에서서 적진을 향하여 전진하는 장수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바울의 말씀도 귀했지만 바울의 행동은 더 귀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하여 큰 힘을 얻은 형제들이 힘껏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셋째, 성도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전파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하는 방법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옳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바울에게 괴로움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바울은 오히려 기뻐하였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것은 어떠한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목표도 주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가 복음을 진보시키는 일이 되게 하소서. ② 이 나라에서 모든 불의와 부정과 부패를 소멸시키고 도덕과 경제를 회복시켜 주소서.

『...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1:20)

기차의 긴 차량이 앞에서 끄는 기관차의 힘으로 움직이듯이 사람들도 삶의 추진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이끄는 추진력, 곧 생명의 힘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첫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들의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의 대가로 얻은 것이므로 우리의 피 속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들이 과거의 죄된 모습으로 돌아 간다면 우리들 속에 그리스도의 참 생명이 식어진 것입니다. 성도의 힘은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있음을 깨닫고 그 힘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둘째, 유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가치있게 살아 가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점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남에게 유익을 주어야지 손해를 끼치는 인생이 되면 불쌍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하면서 살아가는 때 그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본인에게는 보람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셋째, 성도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 생명의 힘으로 살아 갈 때에 그 인생은 성도들의 자랑감이 됩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면 성도들의 자랑이 되고 존경의 대상이 되며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됩니다.

우리들은 성도의 자랑,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생명의 힘을 갖고 살게 하소서. ②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국정에 임하게 하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2:5)

일도 중요하지만 일을 하는 마음은 더 중요합니다. 일이 모양은 갖추어도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지 않으면 그 내용은 부실하게 되고 얼마 못가서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성도들이 바른 마음을 갖고 일하면 축복이 넘치고 만일 그렇지 못하면 화가 됩니다. 따라서, 첫째 성도들은 한 마음을 갖고 일해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다툼과 원망과 시비를 갖고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는 한 마음으로 뜻을 합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자신보다 낮게 여겨야 합니다.

둘째,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을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신분은 지극히 높으셨지만 마음은 지극히 겸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극히 귀한 것이지만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지극히 겸손하여야 합니다.

셋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자신이 해야 할 모든 일을 다하게 됩니다.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매사에 있어서 죽음 후에 부활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짐으로써 축복의 그릇을 먼저 준비합시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죄인들을 위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소서. ② 이 사회가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함께 사는 법을 깨닫게 하소서.

†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 (2:15)

본문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할 성화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빌립보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누리게 된 구속의 은총을 가르치면서 이것은 결코 인간들의 능력이나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면서 자신들의 영적인 성장에 힘쓰고, 모든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의 현장을 돌아볼 때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을 믿노라고 고백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열매는 그 고백 만큼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는 말씀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이루어가면서 때를 따라 적절하게 도우시는 그 구속적 사랑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방황하거나 그 사랑으로부터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그리고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사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생명의 말씀을 의지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굳게 서서 온 세상에 말씀의 빛을 힘있게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 기도 제목 / ① 우리 모두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속에서도 말씀의 빛을 힘있게 비추게 하옵소서. ② 서만수 선교사(인도네시아)의 사역이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소서.

“...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2:25)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역을 수행할 때에 함께 그 일을 충성되이 감당 하던 복음의 동역자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합니다. ‘매력있는 자,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지방에서 출생하여 그곳에서 살던 중 사도 바울을 만나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고, 바울을 통하여 신앙훈련을 받은 후에 바울의 선교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다가, 후에는 빌립보교회의 존경받는 지도자 중의 한 사람으로 수고하였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 에바브로디도가 자신의 사역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얼마나 귀중한 의미가 있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 말하면서 가장 먼저 사용한 표현이 바로 “나의 형제”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한 가정을 이루는 혈육간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혈연적 의미의 형제보다도 더욱 친근한 입장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러한 호칭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사람이며 나의 쓸 것을 돕는 사람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그저 단순한 성도의 자리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을 드려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사역자의 자리에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일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으며, 결코 단순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 기도 제목 / ① 우리들도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소서. ② 육호기 선교사(독일)가 사역하는 비스바덴교회와 프랑크푸르트장로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하소서.

「증말로 나의 형제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3:1)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게 되는 여러 가지 의미있는 요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만 내세워 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주 안에서 기뻐함'이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 안에서 기뻐함'이라는 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참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상황들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의 복잡다단한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떠밀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찌하든지 그 '기쁨'이라는 요소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소유해 보고자 애를 쓰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들입니다. 더욱이 그 '기쁨'이라는 것의 가치 기준이 대단히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서 기쁨이라고 인정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동일하게 기쁨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더욱 중요한 기쁨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입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권세로도 만들 수 없으며, 아무리 치밀한 계획과 과학적 수단을 동원한다고 하여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주님 안에서의 기쁨',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의 몸된 교회에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놀라우신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② 이준교 선교사(이집트)의 사역으로 현지인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소서.

·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 (3:17)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본받으라'고 권하는 말씀입니다(17, 18절). 바울은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방인들의 지역에 복음을 들고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가르쳐 주었던 하나님의 사역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들을 통하여 참으로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신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에게 미혹되어 바울의 본래적인 가르침에서 떠나 있었던 상황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는 빌립보교회 교인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진정한 사랑의 마음과 아울러 진정한 안타까움이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권면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신앙이 참으로 모범적인 것이었던가를 돌아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야 할 참된 신앙생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도 이러한 확신과 소망 가운데서 세상을 향하여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있게 권할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인으로 성장하여야 하겠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 모두가 모범적인 신앙인들이 되게 하소서. ② 김주경 선교사(이스라엘)가 계획하는 성지연구소 건립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자 ... (3:20)

빌립보교회 내에는 세속적인 생활 태도로써 복음을 해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빌립보교회 교인들에게 하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본받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바울은 그 동안에도 이 문제에 대하여 여러 번 말을 하였지만, 이번에도 또 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간청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세속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으며, 따라서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성도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그들의 배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들은 경건에 속한 일보다도 먹는 문제와 탐욕과 육신적인 정욕을 더 추구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하면서 그 자유를 가지고 항상 탐욕과 세속적인 것들만 추구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직 성도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세상만을 추구하며 살지 말고, 하늘에 계시며, 장차 성도들을 높여 주실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소서. ② 안석렬 선교사(수리남)의 사역이 결실을 맺게 하소서.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4:6)

바울은 빌립보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이 자기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며, 자기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주 안에 굳게 서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내에 있던 유오디아와 순두게라는 두 여인에게 서로 다투지 말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 두 여인은 빌립보교회의 지도자격인 여인들이었지만, 그들은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그들에게 주 안에서 서로 화목하라고 권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빌립보교회의 동역자들에게 이 여인들을 용납해 주고, 다른 동역자들을 도와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빌립보교회 내에는 지도자들과 복음의 동역자들끼리 서로 용납하고 사랑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이러한 일로 인하여 근심하는 대신 기뻐하고, 서로를 향해 관대한 마음으로 용납하는 관대함을 보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교회 교인들에게 이러한 모든 일로 인하여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들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 교회에 화평을 주시고, 서로 돕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소서. ② 김은태 선교사(홍콩)의 사역으로 중국에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4:13)

사도 바울은 이제 더 이상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모든 일을 종합하는 성도들의 삶의 원리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진실하고 경건해야 하며, 올바르게 정결해야 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게 행동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어떠한 아름다운 일이나 남을 기리는 일이 있을 때에도 위와 같은 원리를 따라 행하라고 하였으며, 그 동안 자기가 빌립보교회에서 가르친 것들을 행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기에게 선물을 보내준 빌립보교회 교인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교회 교인들이 다시 사도 바울을 도우려는 생각이 생기게 된 것에 대하여 기뻐하였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항상 바울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을 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궁핍하기 때문에 그들이 돕는 물질을 기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전도 여행 속에서 주님과 함께 어려울 때나, 부요할 때나 항상 주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이유는 바로 빌립보교회 교인들의 사랑이 다시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바울처럼 모든 일에 자족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들도 모든 일에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하소서. ② 김영대 선교사(수단)의 사역으로 수단인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 」(4:18)

바울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돕기 위하여 자신에게 물질을 보내기로 작정한 일은 잘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실상 바울이 마게도냐교회를 떠날 때에 그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준 교회는 빌립보교회밖에 없었습니다. 빌립보교회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몇 차례 바울의 쓸 것을 보내 주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헌물을 기뻐한 것은 그가 물질을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빌립보교회에 유익하도록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을 기뻐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빌립보교회가 보내준 헌금을 받고 나서 이제도 풍족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자원하는 헌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감사의 헌물을 보낸 빌립보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대로 그들의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실 것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기를 기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라고 하였으며, 그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심령에 넘치기를 축원하였습니다.

우리들도 빌립보교회 교인들과 같이 복음 사역에 하는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이러한 헌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복음 사역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소서. ② 유병세 평신도선교사(일본)의 인술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도 널리 전파되게 하소서.

「...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너희를 ...」(1:4, 5)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처럼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벌이나 배경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 주님의 종된 자신을 가장 먼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록 자신은 옥중에 있는 몸이지만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불신의 세상, 유혹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염려하는 목자의 심정으로 인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골로새교회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은 거의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신앙적으로 유아기에 있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을 믿고 복음의 진리에 바로 서서 불신 세상의 풍습과 이단사상으로부터 신앙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연약한 중에도 받고 배운 바 신앙에 서서 믿음으로 살려는 노력을 보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골로새교회 교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도들간의 사랑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골로새교회 교인들은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듣고 깨닫고 열매를 맺어 자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누군가 우리를 볼 때 칭찬할 만한 믿음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흔들림 없는 믿음과 성도간의 사랑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 자람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자람감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② 김형선 평신도선교사(뉴질랜드)가 섬기는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게 하소서.

f ...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 (1:10)

앞부분에서 바울은 신앙의 열매를 맺어 자라가고 있는 골로새교회 교인들을 칭찬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신앙이 더욱 크게 자라가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한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더욱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누리기를 기도하고 있으며 기쁨으로 인내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는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더욱 잘 성장하도록 기도로 후원하는 일에는 열심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넓지 못하고, 도량이 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다면 그는 아마도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자신의 어려움을 먼저 하소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생각하기보다는 성도들의 성장을,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성도들의 미래를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목자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이웃 성도들의 성장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소서. ② 이기성 평신도선교사(호주)의 사역이 큰 결실을 맺게 주소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1:15)

골로새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칭찬하며 아울러 그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있다고 고백한 바울 사도는 이제 신앙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략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신앙의 스승이 없어서 미혹케 될지도 모르는 골로새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입니다.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는 이단 침투의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골로새교회 교인들이나 여타 다른 초대교회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사상은 바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완전한 신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단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골로새교회 교인들은 이방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는 데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같은 형편에 처한 골로새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은 예수님의 신성(기독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것에 으뜸이 되신 예수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근원이십니다. 어떠한 경우여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정해집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② 고은빈 평신도선교사(케냐)의 어린이 사역이 아프리카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밑거름이 되게 하소서.

“...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1:29)

우리의 신앙의 근원은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는 기쁨도 예수님과 함께 기뻐해야 하며 믿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도 예수님을 위해서 견디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며 또한 신앙생활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로 순간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근원이심을 말한 다음 비로소 자신이 당한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며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피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우며(24절), 자신의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29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겪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차례입니다. 주님이 주신 명령, 곧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에 있어서 주어지는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주의 일을 하면서 당하는 수고와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② 김철영 평신도선교사(일본)의 사역으로 복음이 더욱 널리 전파되게 하소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2:7)

사도 바울은 골로새교회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신자들에게까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도들의 마음에 위안을 주기 원했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를 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있음을 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믿음 위에 굳게 서고, 이단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안에 믿음과 삶의 뿌리를 박아야 하며 주님 안에서 세움을 입어야 합니다. 또한 교훈 받은 대로 믿음에 서야 할 뿐만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단들이 성도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무섭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수를 주로 믿는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시고 믿음의 생활을 잘해야 하며,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서로 교제하며 연합하고 사랑하면서 주님 안에서 모든 신앙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이단들은 맥을 추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더욱 성숙해지며 성도들은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릴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이단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여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② 이 땅의 35만 농아인들이 여호와 중인이거나 몰몬교 같은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③ 북한에 남아 있는 성도들이 신앙의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소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2:15)

사도 바울은 골로새교회 교인들에게 누가 “헛된 속임수인 철학”으로 너희 자신을 약탈하거나 거짓 선생들이 거짓교훈을 가지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노략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헛된 속임수인 철학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유전과 초동학문을 좇음이며,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이면 족한 것입니다. 헛된 속임수인 철학도, 율법주의도, 잘못된 신비주의도, 금욕주의도 필요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가 되었고, 또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아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요구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써, 대속을 완성하셨고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가치관, 돈, 명예 등에 현혹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승리를 보장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십자가는 죽었던 자를 살렸고, 모든 죄를 용서받게 했으며 율법을 도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권세를 벗어 버렸습니다. 이와같은 주님의 승리를 우리 각자가 체험하여야 하겠습니까.

▶ 기도 제목 / ① 세상의 잘못된 지식과 가치관, 돈, 명예, 욕심 등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소서. ② 제2교육관과 충현동산 관리동 신축 공사가 어려움 없이 진행되게 하소서.

『...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2:19)

골로새교회에 나타난 이단 사상들이 본문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폄론하는 것입니다. 폄론하는 것은 심판하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 내에서 먹고 마시는 음식 문제와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등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심판하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둘째는 천사를 숭배하는 이단 사상입니다. 골로새교회에 침투한 이 악한 이단 사상들은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으므로 천사를 중보로 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중보자 되심을 부인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단 사상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들이 그리스도와 아무런 생명적 관계를 가지지 못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단 사상은 참된 교회의 성장을 가져다 주지 못하며 오히려 심각한 폐해를 입힙니다. 바울은 본문 19절에서 분명하게 교회의 성장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머리)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단단히 붙어 있을 때,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만 참된 교회 성장이 가능합니다. 인체가 마디와 힘줄로 적절히 지탱되고 연합될 때 정상적 성장을 하게 되듯이, 교회 역시 지체의 각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로간의 사랑의 유대를 지탱하고 유지함으로 성숙한 성장을 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 살아야 합니다. 성도간의 관계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성도와 교회는 이단사상에 빠지지 않고 성숙한 성장을 계속할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성도들이 이단을 이기고 교회 성장의 역군이 되게 하소서. ② 1월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2월에도 사랑과 은혜로써 함께 하소서.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사회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적합합니다.
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1 과

출애굽기(1)

읽을 말씀 / 히브리서 11장 23-26절

찬 송 / 344, 138장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밖으로 나아감'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통치자 바로의 멍에 아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박으로부터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인한 인간의 타락을 보았는데, 출애굽에서 우리는 보혈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구속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창 46:27은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이 70명이라고 말씀하는데, 약 400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올 때는 600,000명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이 있었다고 출 12:37은 증거합니다. 전체 약 200만명 정도가 나온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애굽 : 1장 ~ 18장 / 하나님의 능력, 새로운 삶, 자유
2. 율 법 : 19장 ~ 24장 / 하나님의 거룩하심, 율법 아래의 삶, 책임

3. 성 막 : 25장 ~ 40장 / 하나님의 지혜, 사랑과 교제의 새로운 삶,
특권 등입니다.

출애굽기 본문 연구

1. 모세와 바로의 대결(1장~10장)

1) 모세의 출생과 궁중에서의 40년의 생활을 설명하고 있는 히 11:23~26
을 읽고 모세가 가진 믿음의 특징들을 살펴보십시오.

- ▶ ① 모세의 부모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졌다(23).
- ② 모세는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하였다(24).
- ③ 모세는 죄악의 낙보다도 고난받기를 좋아하였다(25).
- ④ 모세는 세상의 보화보다 하늘의 상주심으로 더 소망하였다(26).

2) 미디안 광야에 있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
습니까(출 3:7-10) ?

- ▶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고통과 부르짖는 그 백성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게 하심(7-8)

3) 입이 둔한 모세를 대변하게 될 아론과 모세의 관계를 하나님은 어떻게
정하셨습니까(출 4:14-17) ?

- ▶ ① 아론은 모세가 준 말을 하게 될 것이며, 그는 모세의 입을 대신한다
(14,15).
- ② 하지만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16).

4) 모세를 통하여 바로와 애굽에 내린 아홉 가지 재앙들은 어떤 것들이었는지를 찾아보십시오(출 5-10장).

- ▶ ① 피 재앙(7:14-25) ② 개구리 재앙(8:1-15)
- ③ 이 재앙(8:16-19) ④ 파리 재앙(8:20-32)
- ⑤ 악질 재앙(9:1-7) ⑥ 독종 재앙(9:8-12)
- ⑦ 우박 재앙(9:13-35) ⑧ 메뚜기 재앙(10:1-20)
- ⑨ 흑암 재앙(10:21-29)

◆ 오늘의 묵상 ◆

1. 믿음으로 세상의 영화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능욕의 삶을 더 좋아한 모세의 신앙이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2. 주님은 왜 신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3. 모세의 부족한 언변을 아론이 대변해 준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서로의 일을 분담하며 섬기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필요합니까?

제 2 과

출애굽기(2)

읽을 말씀 / 출애굽기 12장 1-14절
찬 송 / 137, 502장

2. 보혈과 능력에 의한 구원(11장~14장)

- 1) 애굽에 내린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은 무엇이었습니까(출 11:5)?
- ▶ 바로의 장자와 맏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의 처음 난 것이 죽게 됨
- 2)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들의 죽음 가운데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출 12:1-14)?
- ▶ 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되었다(7).
② 그 피는 심판자를 넘어가게 하는 표적이 되었다(13).
③ 이 피는 곧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의 희생의 보혈이었다(고전 5:7).
④ 그래서 이날은 이스라엘이 영원히 기념할 유월절이 되었으나(14), 신약시대에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찬으로

승화되었다.

3)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그들과 무엇으로 함께 하셨습니까 (출 13:17-22) ?

▶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더위를 막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광야의 추위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다(21, 22).

4) 이스라엘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신앙의 원리는 무엇이었습니까(14:13-14; 21-31) ?

▶ 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심(14, 24-25).

② 바닷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됨(21).

③ 애굽군대가 남김없이 물속에 잠기게 됨(27-28).

◆ 오늘의 묵상 ◆

1. 문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을 살렸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더 귀하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어 보십시오.

2. 유월절은 성찬으로 승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성찬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들을 나누어 봅시다.

3.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의 강력한 표적들이었습니다. 현재의 생활에서 함께 하시는 임

재의 표적들이 있었는지 돌아보십시오.

제 3 과

출애굽기(3)

읽을 말씀 / 출애굽기 16장 13-20절
찬 송 / 394, 399장

3. 광야 생활(15장~18장)

1) 구속받은 자의 노래(15장)에 이어 40년간 계속되어야 할 광야생활 동안에 양식은 어떻게 공급이 되었습니까(16장)?

▶ 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심(4).

②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만나가 내려짐 (13,14).

③ 백성들은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35).

④ 광야의 만나를 주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주시는 신령한 떡의 상징이었다(요 6:47-51).

2) 백성들은 마실 물을 어디서 얻을 수 있었습니까(17장)?

▶ ①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셨다(17:6).

② 반석의 물은 그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었다(요 4:13,14).

③ 반석은 그리스도였으며, 그 물은 신령한 물이었다(고전 10:4).

4.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음(19장~20장)

1) 율법을 받기 전에 백성들은 그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하기로 하였습니까(19장)?

▶ 시내산 기슭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실 계명대로 준행하겠다고 언약을 맺었다(19:8).

2)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10계명을 간략하게 요약해보십시오.

- ▶ 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3)
- ②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며 섬기지 말라(4-5)
- ③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7)
- ④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8-11)
- ⑤ 부모를 공경하라(12)
- ⑥ 살인하지 말라(13)
- ⑦ 간음하지 말라(14)
- ⑧ 도적질하지 말라(15)
- ⑨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16)
- ⑩ 이웃의 집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17)

3) 이같은 10계명을 예수님은 어떻게 정리해주셨습니까(마22:37~39)?

▶ 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37)

②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39)

◆ 오늘의 묵상 ◆

1. 하늘의 만나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만나를 공급받고 있습니까?
2.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들은 모두가 거룩하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목표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십계명을 돌아가면서 읽어보시고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할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제 4 과

출애굽기(4)

읽을 말씀 / 출애굽기 23장 1-9절
찬 송 / 410, 434장

5. 사회 생활(21장~23장)

1) 서로 상해를 입히거나 책임의 문제로 판결해야 할 일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21-22장)?

- ▶ ① 값으로 산 히브리 종은 안식년에 자유함을 주었다(2-6).
- ② 살인한 사람과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동일한 판결을 받았다(12-17).
- ③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분명한 책임과 보상이 있었다(18-25).
- ④ 짐승들이 상해에 관계되었을 때는 주인이 책임을 져야 했다(26-36).
- ⑤ 배상법에 관한 율례의 의미는 이기적인 삶을 배격하는 것이며, 물질로 이웃에게 과실을 했을 경우는 하나님께도 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한다(22장).

2) 안식일을 지켜야 할 대상은 누구이며, 3대 절기는 무엇입니까(23장)?

- ▶ ① 안식일에는 모든 손님이나 종들과 짐승까지도 안식해야 했다(12).
- ② 유월절(무교절), 맥추절(칠칠절, 오순절), 수장절(초막절, 장막절)(14-17)을 지냄

3) 모세는 이 모든 언약을 세울 때 어떤 의식을 행하였습니까(24장)?

- ▶ 화목제 피를 뿌림으로 언약의 피로 명하였다(6-8).

6. 성막(25장~31장)

1) 40일 동안에 모세에게 주어진 성막에 관한 규례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25-31장).

- ▶ ① 성막을 위해 드릴 예물(25장)
- ② 성막의 규모(26-27장)
- ③ 제사장의 옷(28장)
- ④ 제사장 직분의 위임과 제사에 대한 여러 규례들(29장)
- ⑤ 회막을 위한 속전(30장)
- ⑥ 안식일에 관한 규례(31장)

◆ 오늘의 묵상 ◆

1. 판결에 관한 문제는 매우 정확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속에서 금전이나 물질에 관한 문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인지를 나누어 보십시오.

2. 안식일에는 모든 것이 쉬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안식 일을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자신의 생활들을 나누어 보십시오.

3. 성막의 주요한 기능은 죄를 속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은혜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성막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며 죄사함을 위한 기도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예전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교회와 예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 성막의 기능

성막의 기능

제 5 과

출애굽기(5)

읽을 말씀 / 출애굽기 32장 30-35절
찬 송 / 217, 509장

7. 금송아지 사건(32장~33장)

2)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아론을 중심으로 저지른 죄악은 무엇이었습니까(32장)?

- ▶ ①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림(1-6)
- ② 하나님은 이 사건으로 백성들을 진멸코자 하심(7-10)
- ③ 모세는 생명을 건 중보기도를 드림(30-35)

3) 금송아지 사건으로 지연되자 성막을 대신하여 어떻게 하였습니까(33장~34장)?

- ▶ ① 모세는 성막 대신에 장막을 취하여 회막이라 하였다(33:7).
- ② 진박에 세워진 회막에는 모세만이 들어갈 수 있었다(33:7-10).

8. 완성된 성막(35장~40장)

1) 성막을 완성하여 봉헌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성막을 어떻게 하셨습니다(40장)?

- ▶ ① 완성된 성막은 출애굽 후 꼭 1년 만이었다(40:2).
- ② 여호와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34).
- ③ 성막 위에 구름이 떠 오르는 것을 신호로 백성들은 광야를 이동하였다(36).
- ④ 백성들은 성막 위의 구름과 불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였다(38).

2) 성막 안에 있었던 성물들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히 9:1-5)?

- ▶ ① 장막 안에는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었는데 이를 성소라고 하였다(2).
- ② 둘째 휘장 뒤의 지성소에는 금향로와 언약궤가 있었는데,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향로와 아론의 싹 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었으며,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다(3-5).
- ③ 매년 한 번씩 들어가야 할 지성소의 제사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제사로 완성되었다(12).
- ④ 구약의 모든 제사는 능히 죄를 제거하지 못하는 것으로 영원한 제물이신 하나님의 어린양을 기다리는 모형이었다(히 10:4, 10-14).

◆ 오늘의 묵상 ◆

1. 금송아지 사건은 현대판 물질만능주의와 유사합니다. 주님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물질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2. 모세의 생명을 건 중보기도는 놀라운 기도입니다. 오늘날 모세처럼 우리가 드려야 할 중보기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함께 하는 중보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3. 완성된 성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볼 때,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서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을 인도하신 것이며, 또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어디로 무엇을 따라 가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고 있는지 우리의 현주소를 생각해보십시오 !

MEMO

3/13/21

가정예배 안내

■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 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합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